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장난꾸러기 동생 생신

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이다. 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데 그림도 그렸는데 생신 갈 때 편지를 못 가져갔다. 너무 슬프다. 그래도 생신 카드는 나중에 드릴 것이 뻔한데 이것이 뭐가 슬퍼? 이정도 줘야? 너무 재미있는 파티 아니 생신이였다. 예준이는 막 돌아다니고 나는 앉전히 앉아있었다. 예준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애같다. 애까지는 아니지만 뭐? 쯤..... 좋지요 그러나 놀고 싶었다. 생신인데 축하드려야지. 그런데 하필 예준이는 잠시도 초라도 가 만히 있지 않았다. 너무 이상하다 왜 저러는 걸까? 내가 막아 보기도, 그만이라고 해도 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 해줘야 그만한다. 너무 아리는 모습이 좋다. 원래 나는 예준이가 앉전히 줄 알았는데 예준이에게 정말 잘 해주게 후회된다. 그건 그치고 외할아버지가 머리가 아프시다.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. 외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느길..... 그리고 외할머니는 김치는 만있다. 외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-

서울 당서초교

그학년 1반

김민서